



지난주 신청새가족[2024-64]

God bless you

www.immch.or.kr

SINCE 1982.4.11

제24-45
2024.11.17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 절차

- 새가족실(B1)에서 신청서 작성
- 일대일 양육
- 속회(소그룹) 배정
- 양육수료후 등록교인이 됩니다

유정임 권사

2 2025 사역신청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QR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경현 목사 010-9211-1182



3 임마누엘 성탄축하파티

12. 22(주일) 성탄축하파티에 공연으로 함께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개인, 가족, 속회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유한나 목사 010-9670-0537

4 탁구대회

오늘(17일) 오후 2시 30분~ 수 탁구장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가비 1만원 문의 정기평 권사 010-9102-7673
주관 탁구선교회

매일아침예배 오전 5:30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복상노트를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복상노트를 활용해 주세요.
되도록 현장예배 참석을 권합니다
기도의 연합을 통해 개인의 삶과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FRIDAY



예배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수요예배		오전 10시	30분	본당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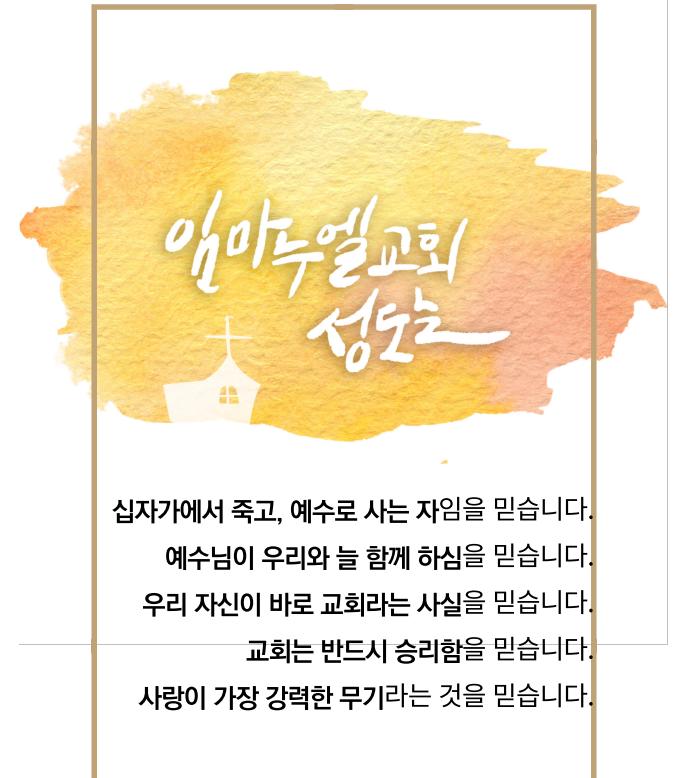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짐비아
이준 위몬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사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국내 기동교회 안민혁목사
영파교회 고봉선목사
익산벧엘교회 미준철목사
극동방송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행복한선교회
건국대학교병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06378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23길 7
T 02.3411.1918

기독교 대한감리회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김영광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찬양

나를 통하여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1부 김선미 권사

대표기도

2부 마승초 장로

성경 사도행전 22:30-23:35(새번역)

사회자

특송 강하고 담대하라 임마누엘찬양대

설교 내 곁에 서 계신 주님 김영광 목사

*봉헌과결단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보라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11/24 1부 김성진 권사
2부 주진범 장로

12/1 1부 김은수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요한계시록

김영광 목사 김경현 목사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예배] 오전 10:30

[수요전도] 오후 1:00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00

[속회예배] 목~토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정 예 배

말씀으로 살아나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온 세대 주일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말씀_ 사도행전 22장



바울을 사로잡은 천부장은 죄목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공의회에 바울을 세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맹렬한 비난과 비판을 바울을 향해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공의회 구성원들을 보니 부활과 천사를 믿는 바리새파와 부활, 천사, 영이 없다 믿는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파인 내가 죽은자의 소망, 즉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심문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소리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이 격렬해지며, 결국 누군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의회가 이렇게 바울의 무죄로 끝이 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십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압송되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바울은 힘을 얻었습니다. ‘아직 내게 사명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구나!’

의회가 바울의 무죄로 끝나자 사람들은 사적인 제재를 가하려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려 그 인원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살기등등했는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가정예배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치밀한 계획을 짰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바울의 조카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조카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삼촌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상황을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천부장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큰일이 생길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로마 총독에게 편지를 썼고, 총독에게 바울을 데려가기로 합니다. 결국 총 470명의 군사들이 바울 곁에서 그를 지키도록 하고 이동이 수월하도록 짐승(말)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고, 말도 타며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지킵니다.

바울은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에도 담대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양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1절)’ 고백합니다.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하나님과 나를 지키신다 고백하십니까? 언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 2)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온라인 현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현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십 / 감사현금-김바울감
주일현금-김바울주 / 선교현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현금-김바울건